

“대일 굴욕외교가 대통령 공약이었나”

민주 강제동원 해법 연일 맹공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

대책위 꾸려...위원장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등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갔다.

특히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친일 굴욕 외교’ 프레임에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외교사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했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조공을 바치려 가는 명나라 시대 조선 왕의 모습처럼 비굴해 보인다”며 “그래서 ‘조공 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해법을 윤 대통령이 설명하고, 총리가 평가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 한다”며 “대통령이 일본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2023.3.13.(월) 11:00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일본침략 선포배상 역사를 팔아넘긴尹정권 미래를 말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제징용 해법 대응을 위한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꾸렸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 김상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대책위에는 외교통일·국방·교육·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문화체육관광·정무·기재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이름을 올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꾸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일방적 양보는 어떤 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

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결국 한일 군사지원협정으로 이어지고, 그 뒤를 이어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요구 사항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정말 걱정”이라며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마디 항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걱정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헌법 수록 안돼”·“北 개입”...여권 인사들 또 5·18 망언

김재원 최고, 전광훈 목사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능”

김광동, 국회 행안위 전체회서의

“북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여권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의 헌법 수록 공약을 부정하는가 하면 2기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제기, 여권이 점차 극우적 성향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

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5·18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선 “헬기 사격 등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 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3번에 걸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역사왜곡처벌법은 그동안 수십 년 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폄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만들어낸 법률”이라고 김 위원장의 인식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 전광훈 목사로부터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이어 ‘(윤 대통령이)전라도에 립서비스한 것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연하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지인들 아니냐”고 윤 대통령의 공약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지금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홍근 “공짜 점심 없다, 김 여사에만 안통해”

“쌍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니 잠시나마 막아보려는 면피성 언론플레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리 ‘국민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해도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 감싸기’는 감춰지지 않을뿐더러 책임론에 서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김 여사 출석 조사 등을 포함한 수사 방식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의혹을 담당하는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파견 시절 법정에서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급한 ‘공짜 점심이

없다’는 세상의 이치마저 김 여사에게만 통하지 않는다는 듯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죄다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런 윤석열 검찰이 ‘제한 없이 수사하겠다’는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수사에 한 치 진전이 없다”며 “고작 검사 2명을 증원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참 공색하다. 불멸의 검사 가족, 신성한 법조 가족들은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와 50억 클럽, 두 개의 ‘국민 특검’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금주 중 법사위 심사를 마쳐달라는 제 요청을 국민의힘은 결코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들어가겠다고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한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의원, 공공의료원 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13일 이상현 의원(울산 북구)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용빈·이상현 의원의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낭독과 피켓 시위에 이어, 광주·울산 지역과 보건료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상현 이용빈 남인순 송갑석 조오섭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올바른공공의료원선택시민운동본부, 울산 건강연대, 광주시, 울산시, 건보노조, 보건노조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용빈 의원은 촉구문을 통해 “경제성 논리로 따져도 감염병 사태마다 돈으로 병상을 사는 비용

의 20%만 공공의료원에 투자해도 의료안정감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번 광주·울산 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는 윤석열정부의 국민 생명 민감도를 가늠케 하는 좌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울산 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윤석열정부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 이행 ▲공공의료원 사업비에 정부 지원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과 달리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한 광주와 울산은 공공의료원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지방정가 라운지

서대현 도의원, 광양제철 여수 사회공헌 주문

서대현(더민주·여수 2) 전남도 의원은 13일 제 369회 임시회 기간 중 광양제철소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해 “제철소가 들어선 이후 36년 동안 여수 시 묘도동에 사회공헌사업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서 여수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문했다.

광양제철소는 재능봉사단과 포스코 1% 나눔재단 등을 통해 광양시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지만 여수 인근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은 미흡하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은 “여수시 묘도동은 광양제철소와 직선 거리로 불과 1.8k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라며 “광양제철소 설립 이후 포스코는 광양시와 상생협력 회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수시와는 진행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양제철소와 마주보고 있는 여수 묘도동(온동마을, 도독마을, 광양포마을)에는 생활공간 인근에 철가루가 묻어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서 의원 요청이다.

포스코 측은 이와 관련, “지나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적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건강검진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며 “울해도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상가매매(상무지구)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평가 11억 → 최저가 11억</td> </tr> <tr> <td>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북구 오치동 (주택) ▶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남구 월산동 (주택)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td> </tr> <tr> <td>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able>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평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p>(보3천, 월수익 380만)</p>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평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010-2614-9801	010-6670-9800									